Saurus Entertainment

<내가 만든 신> Counterfeit Gods

2020 07 14

<내가 만든 신>을 읽고

먼저 후기를 쓰기에 앞서 저는 이 책을 '충격'과 '공포' 두 단어로 표현 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저는 신앙심이 보통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잘 못 된지도 모른채 매 순간 찾아오는 공허함은 떨쳐내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속한 아이언모나크 밴드 맴버들이 책을 읽고 나누는 Just Show Up 북클럽이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제의했고, 저는 흔케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큰 기대가 없었지만, 첫 챕터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어느 부분이 잘 못 되었는지를 다루었고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가격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기하는 기독교이긴 하지만 저를 포함한 모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었고 또 흥미로웠습니다.

내용이 깊이 들어갈 수록 이 책은 마치 저를 얘기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던 그 기간 동안 공허에 빠졌는지 파악하는데에는 불과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읽는 챕터 내내 제 문제점들이 보였고, 매 챕터마다 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새롭게 해석되면서 충격에 빠지곤 했습니다.

이 책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무교이신 분들도 인생 가운데에서 공허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읽으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이언 모나크 드러머 조성창